

배포일시	2020. 12. 30.(수) 14:00 (총 5매)		보도시점	2020. 12. 30.(수) 15:00	
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실	담당자	과장 이용섭 사무관 박승균	전화번호	02-2181-0372 02-2181-0380

기상청, 몽골에 기후변화 감시와 대응 지원한다.

- '제9차 한-몽 기상청 기상협력회의' 개최
- 몽골 관측자료 실시간 수신으로 황사·한파 등 국내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기여

□ 기상청(청장 박광석)은 12월 30일(수), 한국과 몽골의 기후변화감시와 기상기술 역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'제9차 한-몽 기상협력회의'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.

○ 이번 회의는 박광석 기상청장과 앙크투브신(Enkhtuvshin Sevjid) 몽골 기상청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대표단이 온라인으로 참석했으며, 앞으로 2년간 양국 간 기상기술 협력을 위한 분야별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한국과 몽골은 2003년 기상협력 양해각서(MOU) 체결 이후 격년으로 황사 및 기후예측, 수치예보모델기술, ODA 사업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로 8차례의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.

□ 이번 9차 회의를 통해 △관측자료의 실시간 상호교환 △몽골 내 황사감시 기상탑의 공동 운영 및 모니터링 △기후예측 기술 △수치예보기술 △공적개발원조 사업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다.

□ 특히, 한국 기상청이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을 통해 구축한 몽골 지역의 32개소 자동기상관측자료(AWS)를 올해 12월부터 실시간으로 수신하고 있으며,

○ '21년 상반기부터는 몽골 전역의 △자동기상관측자료(290개소) △고층 관측자료(1개소) △황사관측자료(PM10, 11개소)를 추가적으로 수신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몽골에서 발생하는 황사, 한파 등은 2~3일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, 몽골 기상기술 지원은 국내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박광석 기상청장은 “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협력 국가인 몽골과의 기상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‘포괄적 동반자 관계’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.”라며, “몽골과의 기상기술 협력으로 동아시아 기후변화감시와 대응 역량을 확대하겠습니다.”라고 말했다.

□ 붙임: 1. 제9차 한-몽 기상협력회의 사진

2. 몽골 자동기상관측시스템(AWS) 구축 ODA 사업 개요



| 제9차 한-몽 기상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광석 기상청장 |



| 제9차 한-몽 기상협력회의의 단체사진 |

□ **배경**

- (배경) 몽골은 폭설, 먼지폭풍, 가뭄, 사막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 재해를 겪고 있으며 특히, 빈번한 조드(dzud)*로 인해 농축산물 피해가 발생하여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줌

* 극심한 여름철 가뭄 후에 이어지는 겨울철 혹한

- (목적) 몽골 기상관측시스템 현대화를 통해 기상서비스 향상과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

□ **사업 개요**

- 사업기간/예산: 2017.~2019(3년)/ 33억원
- 주요 사업내용
 -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및 인근 6개 지방 기상관측소에 AWS 설치(32개소)
 - 기상관측자료 수신 및 기상예보를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·표출시스템 구축
 - 기상관측자료 활용 및 시스템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

□ **기대 효과**

- AWS 구축 지원을 통한 몽골 기상업무 현대화 및 예보서비스 역량 강화
- 몽골 기상관측자료의 실시간 수신을 통해 황사, 한파 등 국내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과 수치모델 개선 기여



AWS 설치 지점(32개소)



AWS 설치 현장



기상관측자료 표출화면



관측장비 운영 현장교육